

보육인광장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2018. Autumn+Winter

Vol. 06



CONTENTS

2018. Autumn+Winter
Vol. 06

발간사

03 의미 있는 행복을 채우는 아이들과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

보육 브리핑

04 EDUCARE NEWS

08 201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보육 이슈

10 궁금합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12 통학차량 안전, 대책보다 중요한 건 '실행'으로 옮기는 것

15 아이들의 '웃음'을 기억하라! -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체크리스트

보육 플러스

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은?

22 독일, 아동 중심의 기본이념 위에 일·가정양립의 보육정책으로

보육인 뜰

24 '시간'이 만들어주는 기적

- '2018 우리들의 보육 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센터 소식

육아종합지원센터 매거진 [보육인 광장]

발행일 2018년 9월

공동발행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북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북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대표번호 : 1577-075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발간사

2018. 보육인광장 Vol.06

02 ____ 03



의미 있는 행복을 채우는 아이들과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

마미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마미정입니다.

이번 여름은 마주하기에는 너무 힘든 인내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어릴 때부터 들어온 탓에 마음속의 9월은 분명 가을인데 여름의 열기가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 각 층의 관심과 그로 인한 쓴소리가 무더운 여름의 폭염보다 더 힘들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이들의 하루에 행복을 심어주시느라 수고하신 보육인 여러분의 소리 없는 애씀과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도되는 어린이집 관련 기사를 보면서 양가적 감정이 스쳐 갔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고,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동질감과 이질감의 공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당사자가 아닐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질감을 느끼지만, 사회라는 틀에서 보면 같은 보육인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동질감으로 인식되어 사고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기에 내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보육인의 행동이기에 사회의 쓴소리에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의 소리 없는 노고와 아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애씀을 알기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동행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신뢰받기 위한 어린이집이 되기 위해서는 1%의 불행도 존재하면 안 되기에 보육은 항상 100%의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든 것임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퍼즐이 잘 결합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퍼즐과 어린이집이라는 퍼즐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모든 시간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가정 내 아동학대와 부모역할에 대한 부족 등 가정이라는 퍼즐이 모든 아이들에게 100%의 행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퍼즐은 그들에게 100%의 행복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한쪽이 미흡하더라도 한쪽이 완전하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욱 당당하게 부모에게, 사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야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보육인 여러분!!

내가 아닌 이질감과 보육이라는 동질감 속에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하루를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하루도 의미 있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DUCARE

NEWS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발표

지난 7월 17일과 18일, 연이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더 이상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보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도입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할 계획이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맨 뒷좌석 확인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미 지자체별로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 어린이집 안심 등·하원 서비스 추진

어린이집 교직원 및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IoT’ 기술기반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유아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 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강화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고,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또한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현재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동승교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아동학대예방 교육내용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장기간 미종사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즉각 필요한 전문성과 관련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미종사 기간별 의무교육과정도 개설된다.

■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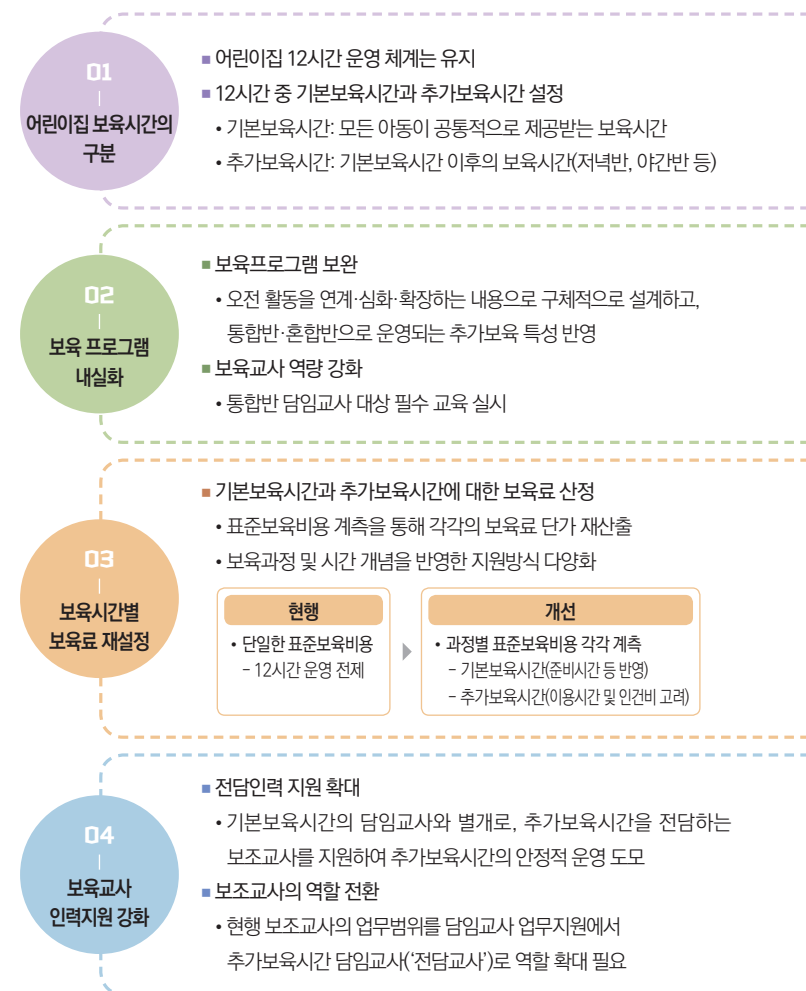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하여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7일(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구성 이후 10차례 회의 및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고,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는 4가지 정책 대안으로 ▶어린이집 보육시간의 구분 ▶보육프로그램 내실화 ▶보육시간별 보육료 재설정 ▶보육교사 인력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추가 논의사항으로 영유아의 이용시간, 부모수요, 하원시각 등을 고려한 기본보육시간의 설정(7시간, 8시간...)과 추가보육시간 지원대상, 단시간 보육서비스 제공체계 검토, 재원투입 및 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학부모, 보육단체 등의 의견을 추가 청취하여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금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 편성,
아동·보육 분야는 7조8,546억 원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 포용적 복지서비스 구현’을 중심으로, ①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②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③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④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아동·보육 분야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등의 지급으로 금년 대비 21.6% 증가한 7조8,54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과제	2018년	2019년 예산안	비고
국공립 어린이집	3,607개소	4,057개소	민고 말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450개소)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보조교사 2만 5,000명 대체교사 2,036명	보조교사 4만명 대체교사 2,736명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조교사 +1만 5,000명, 대체교사 +700명)
시간제 보육시설	443개소(+23개소)	483개소(+40개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443 → 483개소)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90% 0세~5세 10만원	소득하위 90% 0~5세 10만원	’18.9월 신규 도입 (4개월 분 → 12개월 분)

아동·보육 관련 예산 살펴보기

- (아동수당)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6세 미만(소득하위 90%인 약 220만 명)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보조교사(1만 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 증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원장 1.8%, 교사 2.3%)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추가 확충
- (영유아보육료) ’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 인상(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
- (시간제보육) 가정양육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40개소 확대(443개소 → 483개소)

9월부터 ‘아동수당’ 첫 지급 시작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6세 미만(0~71개월)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6월 20일(수)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아동수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수당 사이트(<http://ihappy.or.kr/>)를 운영 중이다. 아동수당의 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소득 인정액>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아동 수×5만원)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예비부부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전국의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특히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출산, 육아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부되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4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전 등원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₁₀ 81μg/m³, PM_{2.5} 36μg/m³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개소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의 자세한 명단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명단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

201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교사 휴게시간 부여 관련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일부가 개정되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변경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관련하여 무엇이 변경되고 확대되었는지 살펴보자.

* 출처: 201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01

낮잠시간 등
특정시간 예외적으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변경 가능

7월부터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1명이 2개 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정시간 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의 예외적 허용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최대 6명
1세	5명	최대 10명
2세	7명	최대 14명
3세	15명	최대 30명
4세 이상	20명	최대 40명

•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특별활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원장과 협의 하에 담임교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보조교사 포함)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02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대상 확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대상이 기존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까지 확대되었다.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전액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로 모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이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산정 방식

$$= \frac{\text{월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text{월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times \frac{\text{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주당 근무시간}}{40\text{시간}}$$

03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조교사 지원대상 기준 완화

보조교사 6,000명 추가지원('18.5월 추정편성)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가정 등 일부 유형 어린이집에서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영아반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 지원까지로 완화되었다.

사업대상

- 1)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2) 모든 유형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 (공통)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 (1순위)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 (2순위)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 *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시간제보육반



보조교사 지원제외 대상 명확화

보조교사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된 반면, 지원제외대상에서 '행정처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행정처분' 외에 ▶보조교사가 교사겸직원장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적발된 경우 즉시 지원중단하며, 적발된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가 채용 후 6개월 이내까지 장애아과정 특별직무교육 미이수 시에도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보조교사 업무범위 구체화

보조교사의 업무범위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다. 여기에 ▶담임교사의 근무 중 휴게시간 사용 시,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원장과 협의시간) 동안 보조교사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휴게시간 외 담임교사의 외출, 조퇴 등 1일 이내 휴가 사용 시에도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이 가능(담임교사 업무 대행으로 연장 근로 발생 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다. 그러나 보조교사는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법령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특정반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 보조교사가 특정 반 담임교사나 교사겸직원장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 ☞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및 외출, 조퇴 등 1일 이내 휴가 사용 외의 시간에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
-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궁금합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7.1.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육교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실행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관련 교사 대 아동비율의 예외적 허용규정을 만들고, 보조교사지원 확대라는 정책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 출처: 어린이집 휴게시간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4040, 2018. 6. 26)

Q — 보육교직원 ‘상시 4명 이하’인 가정어린이집도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몇 가지 조항은 적용받을 수 있는데 ‘휴게시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4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도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별표1]).

Q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시작 전·후에 부여할 수 없나요?

A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시작 전·후에 부여할 수 없으며, 조기퇴근이 휴게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잔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여하여도 안 됩니다.



Q — 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이거나,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며, 8시간 미만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근로계약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 휴게시간 대신 수당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A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무수당 등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3.19.).

Q — 어린이집의 특성상, 1시간 연속으로 휴게시간을 보육교사에게 주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하여도 되나요?

A — 본래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휴게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 01254-884, 1992.6025). 따라서 어린이집 특성상 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면 보육교사와 휴게시간 분할 사용에 대해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 어린이집 보육공간 내부에서 영유아와 함께 휴게시간을 이용해도 되나요?

A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보다 실제 휴게가 가능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미 준수 시,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A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르면 ‘휴게시간(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 ☑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1명이 2개 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본문 p.8 참고)
- ※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업무 중 ‘담임교사의 근무 중 휴게시간 및 외출, 조퇴 등 1일 이내 휴가사용 시에도 담임교사의 업무 수행’ 가능 명시



통학차량 안전, 대책보다 중요한 건 '실행'으로 옮기는 것



‘24년만의 최대 폭염’이라는 여름이 지나갔다. 유난히 무덥던 지난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방치로 4세 유아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2013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어른들로 인하여 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책보다 중요한 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어른들의 몫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매뉴얼만 지켰어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는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차량기사는 전원하차 확인 의무 위반 및 출결 확인 종료 시까지 차량 내 대기 지침을 미준수하였고, ▶동승교사는 전원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아동 무단결석 시 부모에게 확인토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차량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모두 아이가 통학차량에서 잠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에 관리책임이 있는 원장에 대한 통학차량 관리 소홀도 결코 묵인할 수 없는 일이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안전관련 매뉴얼’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를 그대로 실행했는지 여부다. 매뉴얼을 문서로만 두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매뉴얼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리 매뉴얼

어린이집 차량운행 시 지켜야 할 관리 규정이나 지침 등은 「도로교통법」을 비롯하여 「영유아 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을 근거로 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부모모니터링단 지표에서도 ‘차량운행안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안전’은 여러 번 반복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생명’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과 지침, 지표 등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통학차량 안전사고도 결국 ‘통학차량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인사(人死)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이라고 무시하는 순간, 안전사고는 일어난다. 다시 한번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어린이집 사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자.



운영관리(원장)	운전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총괄하기 -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관리하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기 -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운전자와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신규 안전교육(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 정기 안전교육(2년마다) -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집 내부의 잘 보이는 곳’ 비치 -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내부에 비치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 동승,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 착용 - 통학차량에는 금연 상징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 부착, 차량용 소화기 및 비상약품 비치 - 통학차량에 ‘어린이 보호’ 표시 부착하기

운영관리(원장)	운전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반기별마다 운전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제출 - 통학차량 매일 안전점검 실시(안전점검표) -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차량은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하기 -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와 동승교사 모두 좌석에 앉아서 안전띠를 맨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기(동승교사에게 출발 알리기) - 광각실외후사경 등으로 차량 주위에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출발하기		- 영유아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기 - 하차한 영유아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기(영유아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교사가 함께 건너도록 하기) - 어린이집 등원 시에는 통학차량 영유아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기 - 하원 시에는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 확인하기 - 등·하원 모두 마지막에는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기	



운영관리(원장)	운전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확인하기 - 영유아를 차례대로 승차시키고,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 매주기 - 차량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 동승교사도 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맨 후, 운전자에게 서서히 출발하도록 안내하기 - 운행 중, 영유아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기 - 하차 시,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하기 - 어린이집 등원 시에는 영유아의 안전띠를 풀어주고, 한 명씩 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차시키기		- 등원 시에는,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없이 바로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에게 통보하기(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이 동일인지 확인하기) - 하원 시에는, 하원 장소에 내리는 영유아의 안전띠를 풀어주고,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 하차한 영유아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기(영유아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교사가 함께 건너도록 하기) - 등·하원 모두 마지막에는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기	

운영관리(원장)	운전기사	동승교사	담임교사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구분	운전자 매뉴얼	동승자 매뉴얼
공통	-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살핀다. -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속도를 줄여 운행한다.	
승차 시	①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③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키는지 확인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고 동승보호자가 문을 닫으면 출발을 알린다. ⑥ 광각실외후사경 등으로 확인 차량 주위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⑦ 다른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승보호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⑧ 안전하게 서서히 출발한다.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킨다. ③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준다. ④ 주변에 다른 어린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⑤ 모두 승차하면 문을 닫는다. ⑥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운행 중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서행하면서 동승자에게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 확인한다.	①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가 풀어진 경우 즉시 매준다. ③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한다.
하차 시	① 차를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차한다. ② 기어를 주차(수동일 경우 중립)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린 후 동승보호자에게 알린다. ③ 동승보호자에게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도록 한다. ④ 동승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⑤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확인한다. ⑥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한다) ⑦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⑧ 차문을 닫고 서서히 출발한다.	① 차량이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옆에 안전하게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② 어린이 안전띠를 풀어준다. ③ 오토바이, 자전거가 오는지 뒤쪽을 살피고, 먼저 하차한다. ④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⑥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⑦ 차문을 닫고 운전자에게 알려 서서히 출발하도록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8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247

아이들의 '웃음'을 기억하라!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체크리스트



지난여름, 11개월 영아를 재운다고 교사가 이불을 씌우고 위에서 눌러 '영아가 질식사'하는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이 무색할 만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어린이집의 행복은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할 때 완성된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고, 웃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보육인이 먼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해 보자.

보육인 먼저 스스로 돌아보자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3년 202건 → '17년 58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신고가 늘어나고, '15년 CCTV 의무설치에 따른 적발사례 증가도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이유는 다양하고, 이에 따라 보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우리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아동학대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며, 보육교직원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말 이런 일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의 여러 이유 중 보육교사가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사들은 '아이를 재우려고', '편식지도를 하려고' 등의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아이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들

-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
-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도록 강요하거나 주워 먹도록 하는 경우
- 점심을 늦게 먹는다고 식당에 아이를 두고 모두 보육실로 올라가는 경우
- 낮잠시간에 보육실을 비우는 경우
- 잠이 오지 않는 아동을 억지로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잠을 재운다고 이불을 머리까지 덮거나 몸으로 누르는 경우
-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장실 등에 감금하는 경우
-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앉히거나 줄을 세우며 등을 세게 미는 경우
- 영유아를 손으로 밀거나 발로 앉아 있는 영유아를 치는 경우
- 영아의 기저귀를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경우
- 울거나 칭얼거리는 영유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 오랜 시간 타임아웃하는 경우

참고자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csia.or.kr/>) > 자료실 > 예방자료실
- 애니메이션: 등·하원시 주의사항, 안전가나다
 - 교육자료: 버스에 혼자 남겨졌어요
 - 어린이집안전관리백과(3). 통학차량과 등·하원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에 제시한 체크리스트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구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2017)」에서 발췌한 것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기 점검, 보육환경 및 조직문화를 점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온나라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보육교사 심리적 특성 체크리스트 **교사용**

☑ 최근 1개월간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을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1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2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인 피로를 느낀다.		
3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기력하고 귀찮다.		
4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기분을 느낀 때가 있다.		
5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6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실수를 할까봐 두려움을 느꼈다.		
7	순간적으로 영유아에게 화가 날 때가 있다.		
8	영유아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다.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자신의 심리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적용 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보육교사 자기 전문성 체크리스트 **교사용**

☑ 최근 1개월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1	아동행동지도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때리기, 소리 지르기, 방치하기 등)		
2	영유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3	영유아가 대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을 때 지도하기 어렵다.		
4	영유아가 다른 친구를 방해하거나,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싸울 때 지도하기 어렵다.		
5	영유아가 자주 울고 고집부릴 때 지도하기 어렵다.		
6	영유아가 실수(옹변, 물 쏟기, 흘리기 등)를 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7	영유아가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거나 늦게 먹고, 편식을 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8	영유아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친구들의 잠을 방해할 때 지도하기 어렵다.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 한다.	
적용 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교사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 **원장용**

☑ 최근 1개월간 보육교사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1	'기저귀나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냥 두기' 등 영유아의 기본적 생활 요구를 방지하는 행동		
2	사람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동		
3	'영유아 혼자 울고 있어도 놔두기', '아프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등 영유아의 요구를 모른 척 내버려두는 행동		
4	'놀잇감 파손', '더러운 화장실' 등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을 알고도 방지하는 행동		
5	아동을 억지로 낮잠을 재우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이는 행동		
6	"똑바로 앉으라고 몇 번을 말했니?", "넌 여기 있어, 우리 갈 거야" 등 영유아를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7	"애들아, 저렇게 돌아다니면 되니?", "오늘따라 땀 났구나? 왜 이리 나대시나!" 등 비아냥거리거나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등의 행동		
8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못 놀아(먹지말자)" 등 영유아를 의도적으로 일과에서 배제시키는 행동		
9	"넌 생각하는 의자(빈 방)에 가 있자" 등 영유아를 과도하게 타입아웃 시키는 행동(5분 이상)		
10	"넌 맨날 친구들 얘기 안 듣고 니 이야기만 하니?", "밥 다 먹을 때까지 돌아다니지 마" 등 영유아의 행동을 막으려고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		
11	"짜려보거나 무서운 눈빛으로 제압하기", '세게 잡아당기기', '얇은 의자를 밀치기' 등 고의로 영유아를 거칠게 다루는 행동		
12	"너도 얼마나 아픈지 꼬집혀볼래?" 등 영유아가 그대로 당해보게 하는 보복성 행동		
13	'자로 책상치기', '때리려는 시늉하기' 등 신체나 도구로 영유아를 위협하는 행동		
14	'꿀밤주기', '툭툭 치기', '꼬집기' 등 영유아를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15	얼굴, 뺨, 등판 등을 손이나 팔, 자 등의 도구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동		
16	"(자기 성기를 친구에게 보여주는 유아에게) 지금 뭐하는 거니? 그럴거면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주지. 애들아 여기 와서 봐봐" 등 영유아의 성적 호기심이나 질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행동		
17	영유아의 성기나 신체를 과도하게 만지거나 억지로 입맞춤 등을 하는 행동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원장이 보육교사의 행동을 평가하여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다.	
적용 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어린이집 조직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원장용**

☑ 최근 1개월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경우 해당 칸에 표시해 주세요.

항목		예	아니오
1	우리 기관은 동료교직원이 영유아에게 과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논한다.		
2	원장은 영유아에게 과도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에게 지도(재교육)를 한다.		
3	원장은 주기적으로 보육실을 참관하여 보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준다.		
4	원장은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보육일지 등을 검토하여 피드백을 준다.		
5	원장은 주기적으로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절한 아동 지도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6	원장과 동료 교사들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7	원장과 동료 교직원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며 협력한다.		
8	원장은 교직원과의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여 공감 및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9	우리 기관은 부모들과 관계가 편안하고 상호간에 신뢰가 있는 편이다.		
사용주기		주기적으로(최소 1개월) 원장이 어린이집 조직문화와 환경을 평가하여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다.	
적용 방법	아니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1개 이상 '예' 체크	'예'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은?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여러 가지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수교육(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도 다양하다. 여기에 어린이집 규모, 형태 등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또 다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그럼 어떤 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 관련 법령 및 보육 사업안내, 평가인증 지표를 중심으로 교육을 정리해 보았다.

3년마다 일반직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40시간 이상의 ‘일반직무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는 원장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승급을 위한 ‘승급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이다. 또한 영아·장애아·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및 원장은 ‘특별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다만,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승급교육, 특별직무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2014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17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1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8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9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직무교육별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3년마다
	특별 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방과후 보육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기관〉

(재)삼성복지재단 (주)멀티캠퍼스 ↓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credu.com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주)에듀케어 아카데미 ↓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	경기안전사육아종합지원센터 (한화에스앤씨(주)) ↓ 한화키즈클래스 http://childcare.welarning.co.kr
---	--	---

어린이집 법정무교육이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운영의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무교육은 ‘보수교육’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 이를 흔히 보육교직원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법정무교육 또는 필수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규모나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보육교직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01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횟수 연 1회 이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참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 온라인교육, 자체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등



03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신규 임용자는 2개월 이내)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2조
참고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실적 매년 입력



02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시행령 제26조
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참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04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내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참고 한국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EDI사이버연수원(http://cyedu.lead.or.kr)

0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횟수 연 1회 이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3조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
참고 아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음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어린이집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명		구분	내용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교육	대상	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1회 교육 •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근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내용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사이트 활용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 교육	대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담당 보육교직원)
		횟수 및 시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6시간 이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37조
		참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s://ehrd.me.go.kr) 참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대상	관리책임자(원장 또는 관리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6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 예외조항 확인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참고	환경보건협회 사이버교육(https://epa.ecoedu.go.kr/jsp)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식품위생교육	대상	운영자 또는 관리(조리사, 영양사 등)
		횟수 및 시간	운영자 : 연 1회(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조리사 및 영양사 2년마다 1회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운영자, 운전자
		횟수 및 시간	•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시행령 제31조의2
		내용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기타	안전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종일제 보육교사)
		횟수	연 1회 이상(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별표 8]/ 평가인증 통합지표 3-5-2-①
	건강·영양교육	대상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조리원 등
		횟수	연 1회 이상(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근거	평가인증 통합지표 3-3-3-②
		내용	영유아 건강·영양교육 실시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영유아 건강·영양 교육을 위한 교수 및 지도방법 등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임용된 보육교직원 중 1인 이상)
		횟수	연 1회 이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유효기간 내)
		근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평가인증 통합지표 3-5-2-④
		참고	교육과정 내 실습 포함

* 위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어린이집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독일, 아동 중심의 기본이념 위에 일·가정양립의 보육정책으로

독일은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에 남성육아휴직 등을 비롯하여 '키타 플러스(Kita Plus)' 정책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의 보육·육아정책으로 2015년 합계출산율이 1.5명을 기록하는 등 점차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부모나 저출산 극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아동 보육 관련 법률 제정의 기본적인 이념은 언제나 '아동'이다.

*참고: 201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해외보육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2010).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0, 독일의 육아정책.

아동 연령에 따라 보육시설 구분

독일의 보육정책은 1990년 이후부터 '아동 청 소년 복지법(Kinder und Jugendwohlfahrtsgesetz)'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6개 주(州)의 재정과 운영상황에 맞춰 운영한다.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Bayern) 주의 경우에는 아동 보육의 질적·양적 확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교육 및 보육법(Das Bayerische Kinderbildungs-und-betreuungsgesetz, BayKiBig)'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Kinderkrippe),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Kindergarten)로 구분하고, 일반 초등학교는 1~4학년, 특수 학교는 1~5학년 아동들을 학교가 끝난 후에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Hort 혹은 Schulhort)에서 돌보아 주고 있다.

최근 독일의 아동보육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은 '아동'에 두되, 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에는 워킹맘을 위하여 늦은 오후나 휴일에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타 플러스(Kita Plus)' 정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육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부모의 현실에 맞춰 운영시간대를 늘린 것이다.

보육·교육기관 들여다보기

- 뮌헨 'Kindergarten St. Hedw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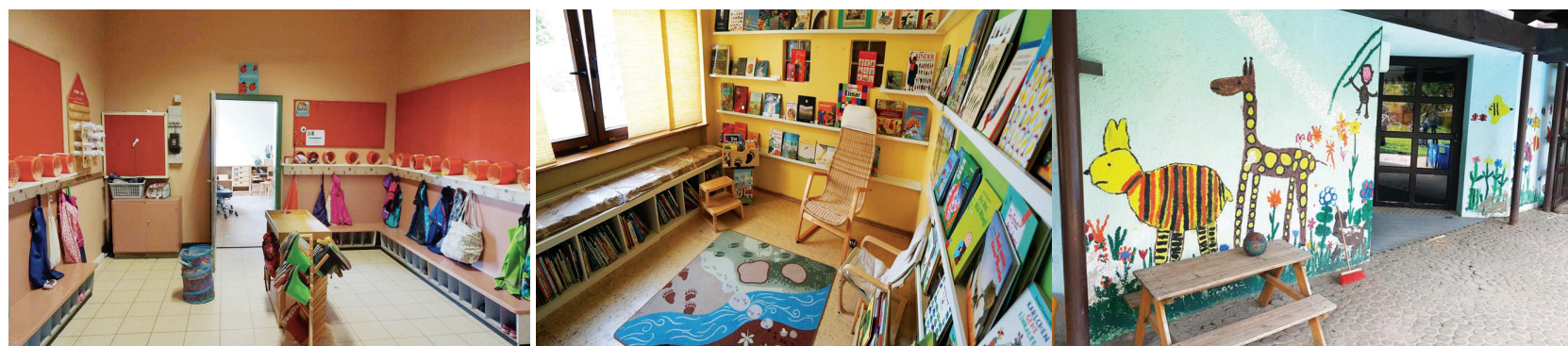
도서관, 텃밭, 놀이터 등 우수한 물리적 환경 구성

독일 남부 뮌헨에 있는 'Kindergarten St. Hedwig'는 천주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만3세부터 만6세까지 이용하는 교육기관이다. 총 75명, 3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명씩 혼합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3:20 또는 3:25이다. 천주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Kindergarten St. Hedwig'의 공간 구성은 교실 외에 도서관, 강당,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부츠 보관장, 탈의실, 장비 및 용품실(아이들용)이 있으며, 실외공간에는 텃밭, 버들 터널, 실외놀이터, 수영장, 잔디언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외공간은 공원을 축소시켜 놓은 듯 넓고, 음악, 미술, 놀이, 야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내·외 물리적 환경 구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유치원 내에 1,000여 권의 책을 보유하는 '어린이 도서관(Kinder Bibliothek)'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 개별적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놀이하는 교육과정

'Kindergarten St. Hedwig'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 주도하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하여 진행한다. 보통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등원하며 일과는 8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오전에는 아이들과 둘러앉아 테마(아이들과 함께 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관심 사항, 계절별로 달라지는 현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후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놀이한다. 특이사항은 유치원 내 조리실이 없다는 것이다. 오전간식은 부모들이 준비해 준 음식을 먹고 점심식사는 인근 레스토랑에서 먹는다. 독일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 조리실을 설치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매우 절차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간식은 대부분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점심은 인근 레스토랑을 이용하기도 한다. 'Kindergarten St. Hedwig'의 경우에는 주 1회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나가 직접 먹을 음식을 정하고 구입하여 먹는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Kindergarten St. Hedwig'은 혼합반을 운영하여 배려와 협력, 사회성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되어진다. 또한 외부활동도 자주하며 교통법규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자립성을 키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장점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기적

아침마다 울면서 등원하던 한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씩스럽게 교실에 들어오더니,
이제는 “선생님~” 하면서
달려와 품에 쏘~옥 안깁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아이가 신나게 친구들과 뛰어놀 때,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던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달려올 때,
낮잠을 자면서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속삭일 때,
교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한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공들인 시간 때문이다”라는
'어린이왕자' 속 문구처럼, 우리 아이들이 남과 다른 것은 교사가 공들인 시간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만든 '기적'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행복한 기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지난 3월에 진행한 '2018 우리들의 보육 이야기' 공모전 수상작을 5호에 이어 이번 6호에도 게재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안은아
서울 노원구 청송창의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한 그날도 아이들과 숲 체험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이야기하며 안전하게 다녀올 것을 약속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 숲 체험장으로 출발했다. 우리 반은 2세 영아반으로 두 명의 선생님이 14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다. 숲 체험장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원에서 배웠던 노래를 부르던 중, 한 아이가 갑자기 넘어져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 곁으로 재빨리 다가가 다친 곳이 어디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지만, 외관상 아무 이상은 없었고 아이도 곧 울음을 그쳤다. “○○아, 넘어졌어? 많이 아파?” 하고 물었더니 “별이 왔어.”라고 대답했다. 아파 아이는 별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뎠서 넘어진 것 같았다. 사고 발생 즉시 부모님께 원아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해드렸다.

숲 체험을 마치고 원으로 돌아와 혹시나 내상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한 결과 코뼈가 살짝 내려앉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서 코뼈를 살짝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 어린 네 살 아이가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하였다.

수술 당일 원장님과 나는 부모님의 얼굴 뵙기도 미안해서 어찌 할지 몰라 좌불안석이였다. 부모님 역시 우리를 원망하는 듯, 눈조차 맞추지 않는 불편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시선보다는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걸’, ‘나는 왜 조심성이 없는 걸까?’,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 데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지?’, ‘나는 무능한 교사는 아닐까?’ 등 자신에 대한 자책과 후회,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몰려오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원장님과 수술을 마

66

‘역지사지’
즉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함께
위로하며...

99

칠 때까지 수술실 앞을 지키며 수술이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1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마취가 깬 아이는 수술부위가 아픈지 계속 엄마를 찾으며 “아파 아파” 하면서 울음소리가 온 병원을 울리는 듯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내가 아이 대신 아팠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다음 날 병실

로 찾아갔더니 아이는 코에 끼운 호스가 불편한지 아프다는 말을 계속했지만 차츰 적응해 가는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아이와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의 진심 어린 모습을 확인한 부모님도 이전보다는 밝은 얼굴로 맞아 주셨다. 다음날 아이는 퇴원했고 일주일 정도 어린이집을 쉬게 되었다. 쉬는 일주일 동안 아이와 통화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도록 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일주일 후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원으로 왔지만 다친 부위를 또 다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했다. 지금은 코도 완치되어 예전처럼 활발하게 원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님과 할머니께서는 사고 발생 시기에는 무척 화내고 원장님과 나를 원망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안전사고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원장님과 선생님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해주셨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피치 못할 상황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럴 때 ‘역지사지’ 즉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함께 위로하며 행동하고 진심어린 소통을 한다면 아이나 부모님께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안전을 중시하는 교사 또한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며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있다.



나에겐 동료들이 있었다

이혜정
경북 포항시 우방새봄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민간 어린이집에 취업
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6년 4개월이란
짧지도 길지도 않는 시간을 앞만 보고 달리며 다
양한 교사들의 테크닉과 현장경험이 무한했던
원장님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며 이후 다른 곳
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주인의 직
책을 맡아 행사와 평가인증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산을 넘
을 때마다 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교사들과 즐거운 원 생
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원을 인수할 기회가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었고
무언가에 썩인 듯 바로 원을 인수하였습니다. 날이 새는 줄 모르
고 정리와 청소를 하며 인가증이 나오길 부푼 마음으로 고대하
던 2017년 9월 14일, 드디어 원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
았고 간판을 몇 번이나 쳐다보고 사진으로 남겨서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자랑을 하며 뽐낼 줄을 보여줄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 달이 되던 쯤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차근차근 교사와 원장이 서
로를 도와가며 하나씩 원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인수를 하고 두 달이 되던 날,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
초, '5.4 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원아들과 교
사들은 대피훈련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피를 한 덕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윗층 건물 피해가 컸고 바깥
외벽 피해도 소름이 돋게 발생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고 기가 차고 어안이 병병하여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길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상황에서 퇴소 원아가 발생하고 부모님의 원에 대한 불안
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피해복구를 조속히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교사들은 휴원 기간 동안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더 이상의 이탈 원아가 생기지 않
도록 부모님들께 양해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위의 도움과 시·군부의 조속한 대처로 원이 정상화되면서 다

66

함께 해준
우리 교사들에게 제일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
99

시 마음을 잡고 1월에 평가인증을 순조롭게 받았
습니다. 관찰자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힘든
건 없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왈칵 눈
물이 쏟아졌고 짧은 기간 동안에 생겼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원아들을 모집하며 열정과 의욕으로 나를 다지게 되
었고 교사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준 덕에 원아들은 배가 되
어 3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을 시작하기 전 교사회의를 통하여 서로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고 뜨거운 동료애로 뭉쳐진 우리 원에 다 같이 애착을 가지
며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인수 때도 함께, 무서운 지진
때도 함께, 교사들이 싫어하는 평가인증 때도 함께, 내 곁에서 함
께 해준 우리 교사들에게 제일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고,
뜨거운 동료애는 백 마디의 말보다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모
범이 되는 원장이 되겠다는 마음을 매일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
하는 우리 교사들을 보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고마워요. 사랑해요. 난 참 행복한 원장입니다.”



원장님 “후우~~해 주세요”



김은예
서울 송파구 토토어린이집

연휴가 유난히도 길었던 작년 추석.
“서윤아, 맛있는 송편도 먹고 할아버지, 할
머니께 사랑 많이 받고 와!”라고 인사를 나
눈 후 서윤이는 하원을 했다. 연휴 마지막
날, 어머님께서 문자가 왔다. 서윤이가 화상
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당분간 등원을 못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마음에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고, 이야기의 전말을 듣게 되었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식탁 위에 커
피 잔을 막 올려놓았을 때였다. 서윤이가 커피 잔이 예뻐 보
였는지 잔을 끌어당기다가 그만 뜨거운 커피가 엷어 젖고, 커
피가 그대로 서윤이의 몸에 흘러 가슴과 배에 화상을 입게 되
었다는 것이다. 시골 병원에서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서울
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이라고 했다. 어른도 몸에 작은 상처 하나만 있어도 신경 쓰
이고 아픈데 서윤이는 얼마나 아팠을까? 괜히 서윤이 할머니
댁에 계셨던 어른들이 원망스러웠다. ‘뜨거운 커피 잔을 왜
아이 손이 닿는 식탁에 두었을까?’ 하고...

다음날 부리나케 준비를 하고 서윤이 병문안을 갔다. 마침 치
료를 시작하기 위해 서윤이와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
었다. 치료받기 싫어하는 서윤이는 울고 있었고, 속상한 마
음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화상치료는 성인에게
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방송으로 종종 접해서 알고 있었다.
치료를 거부하는 서윤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서윤아,
많이 아팠지? 원장님처럼 같이 가서 치료받아볼까? 원장님
도 여기가(상처가 조금 난 팔을 가리키며) 서윤이처럼 아픈
데, 의사선생님한테 아프지 않게 약 발라달라고 해야겠다!”
이내 곧 서윤이는 울음을 그쳤고, 병실에 있던 인형 하나를
들고 함께 치료실로 향했다. 병원 관계자에게 미리 양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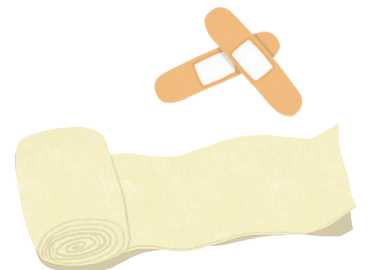
66

여러 번 강조하고
되새겨도 부족하지 않은
영아들의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99

구하고, 내 팔에 약 발라주는 시늉을 해달라
고 부탁했다.
“서윤아, 원장님 먼저 치료 받을게요. 그래
도 서윤이가 옆에 있으니까 참을 수 있겠다!
우리 서윤이도 원장님이 옆에 있으니 참을
수 있겠지?” 했더니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챙겨온 인형으로 짧게 인형극을 해주었더니 서윤이는
인형에 관심을 보였고 그 사이를 틈타 치료를 무사히 잘 마
칠 수 있었다. 치료 후 서윤이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내일은
더 씩씩하게 치료하자고 약속을 했다. 붕대를 감고 있는 서
윤이의 배에 “서윤이 배 빨리 나아라! 아프지 마라” 하며 “후
우~~”라고 해주었더니 서윤이는 얇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한 달 동안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서윤이는 등원한 날 배
를 가리키며 “원장님 후우~~해 주세요” 하면서 와락 안겼다.
후우를 열 번 해주며 “이젠 안 아프지?” 했더니 서윤이는 밝
게 씨익 웃어주었다.

그 후로도 서윤이는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을 때까지 매
일 병원에 다녀야 했지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관심 속에
금방 다시 건강해졌다. 화상치료를 아파하는 서윤이를 보면
서 여러 번 강조하고 되새겨도 부족하지 않은 영아들의 안전
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선생님들과 다시 한 번 다
짐 해 보았다.



너네 선생님은 사람이지?



최지은

인천 남동구 하늘다솜어린이집

바쁜 생활과 하루일과가 반복되는 어린이집. 잦은 행사와 야근으로 초임교사였을 때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어느덧 똥똥한 얼굴과 둥글둥글한 몸매로 변신하여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감소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라는 마법 같은 힘으로 항상 우리 반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물어보면 언제나 한결같이 '최지은 선생님!'이라고 1초의 고민도 없이 답해주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면 옆으로 다가와 "선생님, 속상해? 내가 재미있게 해줄까?" 하며 고사리처럼 아주 작은 손으로 제 발바닥을 간질간질 비벼주며 "내가 울면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해주던 헤민이가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을 웃게 만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랫입술을 질끈 물고 진지하게 간지럼을 피우고 있는 아이를 보며 어느새 못난이 보름달 같았던 제 얼굴을 까맣게 잊고 배를 잡고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통합반을 위하여 저희 반에 여러 연령의 어린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놀이 중간에 장난감과 저를 번갈아서 계속 바라보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선생님은 왜 어른인데 키가 작아요? 왜 키는 작는데 몸은 커요?"라고 아주 큰 소리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66

우리 선생님은
요정님이어서 어른이여도
키가 작은 거야!

99

너무나 당차게 물어보는 목소리로 한순간에 모든 어린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죠. 순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며칠 전에 거울을 보고 한숨을 쉬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서 더욱 말문이 막혀있었습니다.

그때, 헤민이가 달려와 형님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앙칼진 목소리로 "오빠네 선생님은 사람이지?"라고 쓰아붙였습니다. 질문한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당황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질문한 아이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소리로 "우리 선생님은 요정님이어서 어른이여도 키가 작은 거야! 선생님이 몸이 큰 것은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봐 커진 거거든?"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외치는 헤민이였습니다.

그 순간 구세주 같던 헤민이의 모습에 한참을 웃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든가 한결같이 '제일 예쁜 최지은 선생님'이라고 바라봐주는 선생님 바라기가 있어 지친 일상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걱정돼요



전현정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어린이집

"저도 엄마가 걱정돼요."

아이의 한 마디에 무심코 웃으며 "그게 무슨 이야기야?"라고 되물었다. "우리 엄마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회사에 갈 준비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간 적도 있어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웃음을 보였던 내가 슬쩍 부끄러워졌다. "엄마가 많이 바쁘신가보구나?" 교사의 물음에 설명이 이어진다. "일을 하면 바쁠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엄마는 바쁘기도 한데 회사가 엄청 멀거든요. 집에서 지하 철역까지 간 다음에 파란색 지하철을 타야 해요. 그게 4호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철을 타고 끝까지, 아니,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까지 가야 해요. 엄청 멀어요. 그래서 일찍 나가는 거예요." 무뎠던하지만 자세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동안 엄마에 대해 많이 관찰해온 티가 났다. "그래서 우리 ○○이는 기분이 어때?"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다.

"음... 엄마가 걱정돼요. 아프지 않을까 하고요.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밥도 해야 하고, 저를 재우기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아직 잠을 안 자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저보다 먼저 회사를 갔어요." 워킹맘의 고단함이 아이의 설명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럼에도 가끔이라도 시간이 되면 10분이라도 일찍 아이의 하원을 도왔던 어머니였기에 내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무언가 답을 내리자니 설부른 것 같고, 대화는 이어가야 할 것 같아 말을 내뱉고는 조금 후회했다. 아직 만3세, 어린아이이지만 엄마를 걱정하는 또 어떤 단어가 나올지 내심 무섭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66

엄마를 걱정할 줄 아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99

"일을 그만하면 좋겠어요. 저랑 더 많이 놀아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빠가 힘들 거예요. 혼자 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 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 나이 또래의 대답이기도 하고, 훌쩍 큰 아이의 대답이기도 했다.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또래의 여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지만 엄마의 힘들음을 걱정하면서 가정의 전체 분위기를 감싸 안으려는 아이의 모습이 조금은 생소해 보였다.

"그러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선생님도 엄마가 걱정이 되네. 그래도 ○○이가 엄마 걱정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집에 가서 엄마를 꼭 안아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이야기를 건넸더니 아이는 짧게 대답을 하고는 다시 놀이에 집중하였다. 딱히 울음을 보이지도, 종일 걱정스러워 하지도 않았다. 놀이 중 무심코 뵈는 걱정애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그날 알림장에는 어머니께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가슴이 아팠겠지만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나도 엄마를 걱정할 줄 아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 안타까웠고, 그래도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분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 조금 더 부지런히 다가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각나는 나의 제자



양혜진

대전 서구 용문어린이집

‘난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해.’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매체가 만든 편견 때문에 중·고등학생 시절 무심코 뱉었던 말이다. 이 당시 나는 아이들이란 모두 거짓말쟁이에 떤만 쓰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부모님을 따라간 봉사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 첫 취업을 하고 ‘내 아이들’이 생겼을 때 유난히도 눈길이 가는 아이가 있었다. 유달리 조숙한 친구. 아직 감정표현이 서툴러 거칠어 보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늘 양보하고 도와주는 아이였다. 늘 배려만 하는 아이를 보며 ‘좀 더 아이다워도 될 텐데’하고 기특함 반, 안타까움 반의 감정이 들 때 내가 싫어하던, 편견을 가지던 아이들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나는 그제야 아이다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서툰 친구들 사이에서 뺏기고 맞고 하면서도 울지 않던 아이는 내게 늘 미안함이었다. 손이 많이 가는 다른 친구들을 보살피느라 신경을 많이 못 써줘도 언제나 나에게 웃음으로 대해주었다. 선생님의 손길이 그리워 떼를 쓸 법도 한데, 다른 친구들 웃을 입혀주고 양치를 시켜주는 동안 스스로 다하고 부듯한 미소로 칭찬 한마디를 암전히 기다리는 아이였다. 그렇게 날 기다려주던 아이는 학기가 끝날 무렵 조금씩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잘 먹던 음식을 몰래 식판 아래로 숨기거나 친구를 밀치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귀를 막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던져놓고, 웃을 거꾸로 입으며 할 수 있던 일들을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지 않던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이자 나는 조금해져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보고 하였으나 아이는

66

소외 받는 아이가 없도록.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가 없도록.

99

점점 더 그런 행동을 보였다.

속상함에 한숨만 늘어가던 차, 선배 교사의 조언을 듣고 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멈추고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하였다. 아이가 할 수 있어 당연히 하게 넘어가던 일들도 크게 칭찬해주자 아이는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갔다. 보란 듯이 땀겨쳐 놓았던 옷은 바르게 옷걸이에 걸어 놓고, 등원하자마자 가방에서 식판을 꺼내 보란 듯이 흔들어 보인 후 사물함 안에 넣어 정리하였다.

아이는 칭찬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남에도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넘어갔던 것이다. 나는 태도를 고쳐 아이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친구와 싸우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보고 있지 않을 때 다른 친구들이 위험한 행동을 막아준 것에 대한 감사. 스스로 물을 먹고,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아이는 답답했을 것이다. 친구들은 못 하는데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어디 가나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조용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아이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칭찬하지만, 안전한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하는 경우 당연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많다. 지금 그 아이들은 조용히 칭찬을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소외 받는 아이가 없도록.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가 없도록. 오늘도 아이는 서툰 언어로 인사한 후 과장되게 옷과 가방을 정리하며 칭찬을 기다리겠지. 그러면 머리에 입을 맞추고 빙글빙글 돌리며 잘했다고, 선생님이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해 줄 것이다.

아이/아이

박현우

부산 기장군 EG the1 햇살어린이집

공공 언 땅을 뚫고 나온 여린 새싹처럼
작고 여린 아이야
새로운 만남이 낯설고 무섭다고 온 힘을 다해 우는구나

따사로운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으로 여린 싹이 자라듯
두 손 꼭 잡은 산책길에 함께 울고 웃으며
꽃망울을 맺은 사랑스러운 아이야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가을빛 그림을 그리듯
온몸으로 세상에 뛰어들어
꽃망울을 터뜨리며 활짝 핀 아이야

여리디여린 새싹으로 내게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나눈 아이야

이별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이 오면
너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
내 마음속엔 아쉬움만 남는구나
사랑스러운 아이야...



색깔이야기

조은경 ●●●
경기 성남시 구미동어린이집

고사리손으로 만든 편지 속에
선생님이 제일 예쁘다는 말에 내 얼굴은 빨강

주황색 햇빛 아래 신나게 뛰어 놀이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주황

친구들과 놀이하다 친구 얼굴에 손을 뺀
너의 모습을 보니 너무 놀라 내 마음은 노랑

저 멀리서 뛰어오는 초롱초롱한 너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 싱그러운 초록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파랑새 같은 너희들 파랑해

너희들을 보며 관찰일지, 활동을 계획하며 일지,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며 부모 상담 일지
끝나지 않는 서류에 눈앞이 깜깜 검정

신나게 놀이하는 너희들 지금은 정리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야
이제 제발 선생님을 봐 주세요 나를 보라 보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 함께 보라



소리 소리(sorry)

노윤정 ●●●
서울 중랑구 천사어린이집

노심초사(勞心焦思)
너희들이 다쳐 우는 소리
더 지켜주지 못해 내 마음 sorry

좌불안석(坐不安席)
견학 나가 너희들 잃어버릴까 두근거리는 내 심장 소리
실외활동 나가 조심하자고 계속 이야기해서 sorry

허겁지겁
“아~” 너희들에게 한 입이라도 더 먹여주고 싶은 소리
한 명 한 명 더 못 챙겨줘서 sorry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소리
하하호호 싱글벙글
너희들의 웃음소리
우리 원의 노랫소리

이렇게 너희가 행복해하는데도
더 주지 못해 아쉬운 우리 교사들의 마음 sorry



선물

최명진
서울 성동구 구립옥수파크어린이집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센터 소개

설립일 1999. 10.
센터장 이남정
위탁체 숙명여자대학교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전화번호 02-772-9814~9
팩스번호 02-772-9820

●●● 주요 사업

질 높은 보육서비스 향상

-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 아이조아~ 서울(보육과정) 맞춤 컨설팅
- 대체교사지원사업 총괄운영
- 대체조리원지원사업
- 서울시 장애아지원 프로그램
- 재능기부활동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상담

●●● 센터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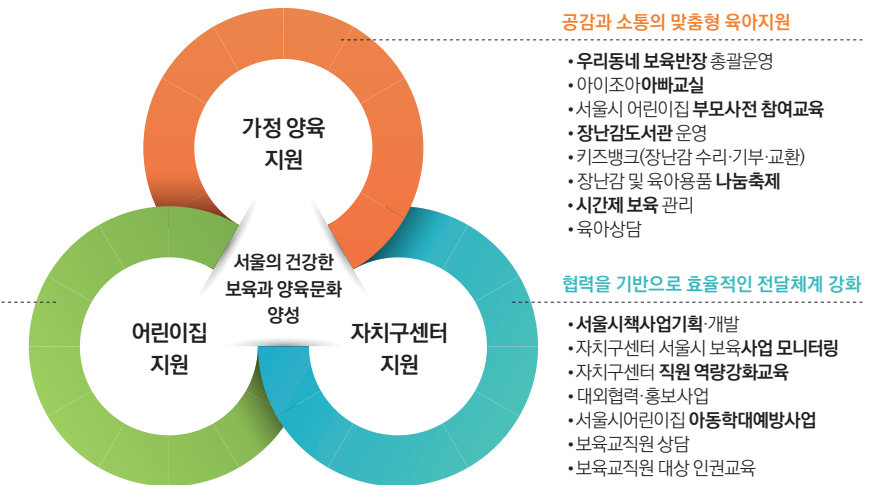
[오프라인 센터교육]

신청대상 부모 및 보육교직원
신청방법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정보마당>교육신청)
교육내용 서울시 보육사업 운영의 다양한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



[녹색장난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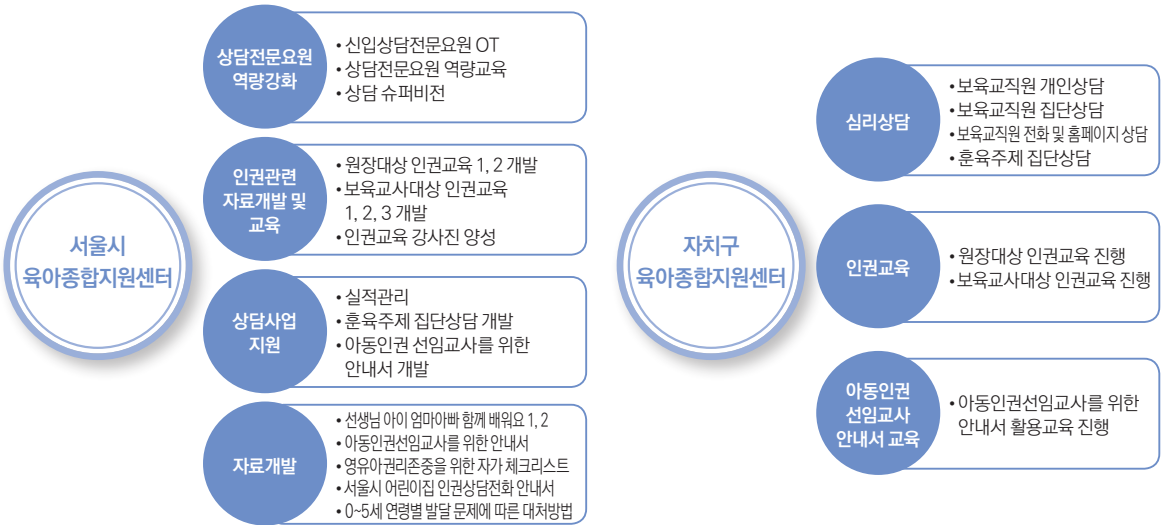
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시민 서울소재 근무 직장인 중 자녀가 만 72개월 이하이거나 장애아동으로 만12세까지인 경우 자녀 이름으로 회원 가입하여 이용
이용방법 위치) 2호선 을지로입구역 8층 내 평일) 10:00~19:30 (토)10:00~15:30 휴관) 매주 월, 일, 공휴일 *자유놀이실 (금)10:30~16:30, (토)11:00~15:00 ※ 행사시 변동될 수 있음
이용내용 장난감 대여, 장난감수리, 자유놀이실 운영
홈페이지 <https://seoultoy.or.kr/>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 사업소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사업

서울시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전문요원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상담

- 보육교직원에게 개인 및 집단상담, 훈육주제 집단상담 두 가지 형태로 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 각 서울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진행일정은 센터별로 상이합니다.

개인 및 집단상담	훈육주제 집단상담
보육교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및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개인(1:1), 집단상담 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보육교직원 자신과 영유아를 이해하고 올바른 훈육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나를 알고 행복하기,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의 주제로 구성됩니다.

■ 인권교육

- 서울시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원장대상 인권교육 1, 2], [서울시 보육교직원대상 인권교육1, 2, 3],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 세 가지 교육을 운영합니다.
- 교육내용 안내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어린이집지원<아동학대예방사업>보육교직원 인권교육)를 참고해주세요.
- 교육신청 및 문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교육신청>, 02-772-9813

원장대상 인권교육 1, 2	서울시 보육교직원대상 인권교육 1, 2, 3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
보육교직원 및 아동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권리에 대한 민감성, 인권익식 개선, 인권원칙 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선임교사의 어린이집내에서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사업소개

■ 2018 장난감 새활용 축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나눔축제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자원 절약 및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즐거운 문화축제의 장입니다. 2017년부터는 가정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을 아이가 직접 판매하는 가족단위 벼룩시장 형태로 진행하며 2018년 10월에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및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 뿐만 아니라 영유아 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새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 (1부)10:30~13:00 / (2부)13:30~16:00
* 우천 시 행사취소
- 장소** 서울상상나라 앞 광장
- 내용** 장난감 및 육아용품 벼룩시장 / 새활용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 문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9



[2017 장난감 및 육아용품 나눔축제 현장]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콘텐츠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뉴스레터

- 부모 및 보육교직원 중 홈페이지 회원과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분에게 차별화되고 선별된 보육 및 육아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육아관련 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촉하여 유용한 정보를 연 6회에 한하여 제공 드립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방법을 확인해주세요.
- 구독방법 : 서울시녹색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http://seoultoy.or.kr> 회원가입 시 이메일 주소 작성 후 “매일 수신 동의” 체크
- 2018 뉴스레터 바로가기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 홍보사업 < 뉴스레터 서비스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자책 도서관

- 온라인 전자책 도서관 사이트에서 양육 및 보육관련 서적 E-BOOK 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내용 :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부모와 보육교직원 등의 다양한 장르의 전자책 10,000여 권
- 이용방법 : 서울시녹색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전자책 도서관 배너를 통해 접속합니다.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SNS

보육교직원, 부모에게 양육 및 보육정보, 보육이슈, 이벤트 등을 실시간 제공하며 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seoul-center>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sccc>

트위터
[링크] <https://twitter.com/sccc>

인스타그램
[링크] <http://www.instagram.com/seoulcenter/>

카카오톡친구
[링크] https://pf.kakao.com/_vxmwxi1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행사

어린이집지원

■ 2018년 보육교직원 정신건강을 위한 집단상담 '나는 나(I am Me)'

- **일시** 2018년 9월 7일, 14일, 21일(금), 16:30~18:00(3회기)
- **대상** 어린이집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보육교사, 대인관계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보육교사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 보육교사
- **장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내용** 의사소통유형 검사 및 해석,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된 개인 경험 나눔, 자기 이해 및 타인 이해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교육신청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합연수

- **일시** 2018년 8월 18일, 9월 8일, 10월 20일, 12월 (토) 예정
- **1순위** 현재 만3~5세반을 담당하고 있거나 말을 예정인 보육교사
- **2순위** 원장 및 보육교사, 보조교사
* 누리과정 보조교사 포함 (대상자 한시적 확대 안내 : 18년 9월~12월)
- **장소** 서울 시립미술관 세마홀 등
- **내용** 총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혼합반 프로그램



2018년 대체교사 역량강화 교육

- **일시** 2018년 8월 25일, 9월 1일, 9월 15일, 9월 29일(토)
- **대상** 서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및 관리자
- **장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 **내용**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감정조율과 관계조율



가정양육지원

■ 2018년 아이조아 아바교실

- **일시** 2018년 9월 6일(목), 20일(목), 10월 11일(목), 25일(목)
- **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
- **장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 **내용** 일과 가정의 균형, 떼쓰는 자녀 이해와 지도방법,爸爸的 회복탄력성, 자녀의 발달에 맞춘 교육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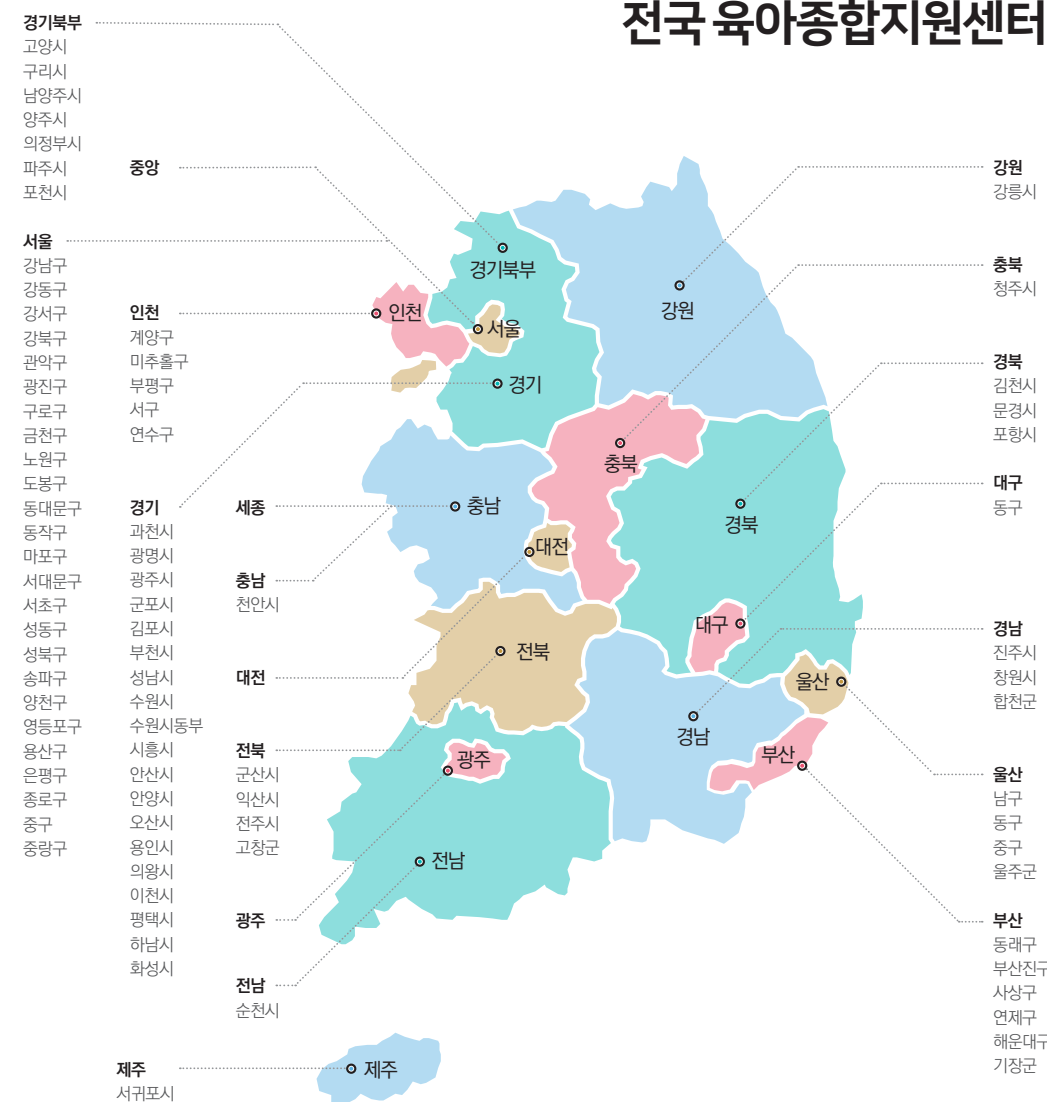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부모사전참여교육

-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9월 15일(토) / 11:00~12:00
- **대상**
 - 1순위: 2018년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간 입소 아동의 부모 및 2018년 신학기 어린이집 설명회 불참 부모
 - 2순위: 어린이집 부모사전참여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장소**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및 회의실
- **내용** 부모 됨의 의미,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와 협력, 숲교육의 필요성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82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0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번호 : 1577-0756



육아종합지원센터 매거진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알찬 정보와 따뜻한 감성으로 보육인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